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신뢰 받는 의료기관 성장

류창수 신임 이사장

최근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이사장 류창수)은 지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의료환경과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들을 초빙해 나가고 있다.

1978년 법인 설립, 1981년 문경병원으로 출발한데 이어 1984년 지금의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으로 병원명을 바꾸는 등 지난 35여년 동안 문경을 비롯 경북북부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오고 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은 허가진료과목 19개 과목을 가진 본관을 비롯 진폐환자의 요양을 위한 진폐전문요양병원인 구관, 만성질환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을 위한 문경제일노인요양병원인 신관 등 3대 병동에서 의사 38명, 간호사 153명, 일반사무직 288명 등 총 479명이 종사하는 중급 종합의료기관이다.

또 2009년부터는 지역민들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외부의료기관과 의뢰



MRI(자기공명영상).

1978년 법인 설립 1981년 문경병원으로 출발
1984년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으로 변경
35여년간 문경·경북북부 지역민 건강 책임져
2015년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운영

환자에 대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의뢰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15년 문경시보건소로부터 위탁받아 문경시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 지역민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돌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경북 최초(시범사업병원 제외)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16병상의 인공신장실을 28병상으로 확장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치과 등에 총 7명의 새 의료진을 초빙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실현하는 서비스로 환자의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아닌 간호인력이 환자를 전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를 줄일 수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내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혈액투석 수요에 맞춰 인공신장실을 확장해 총 28대의 혈액투석기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타 지역의 병원까지 원거리 진료를 받아오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해 확장 오픈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문경제일병원은 경북 서북부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병원이자 문경시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의료장비와 시설에 끊임없는 투자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 의료봉사활동, 복지단체 지원, 건강강좌 등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정신보건시설평가에서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합격을 받았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정신건강의학과로 평가된



인공신장실.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에 위치한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전경.



이웃돕기성금.



연탄후원.



의료봉사.

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 문경제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수한 시설과 수준 높은 의료 인력,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등을 인정받아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문경제일병원은 문경시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와 정신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상현 병원장은 “병원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중소 병원들이 전문병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경제일병원은 지역사회 유일의 종합병원인 만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에 맞게 진료의 다양성을 갖춰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건강을 함께 도모하며, 특히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진료제공 및 수준향상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 실태 합격...정신건강의학과 1등급 선정
고령화 추세 맞춰 노인성질환 특화 진료 제공
각종 최첨단 의료시설 확충 위해 과감한 투자
장학사업·복지단체 지원 등 활동도 지속 추진

“최상의 의료진과 의료장비 구축, 그리고 시설투자 등의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류창수 이사장.

류 이사장은 “2014년 4월 시설 보수와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본관 병동을 7개월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어 당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시설 보수 이후에 오히려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내원객이 증가했고, 또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 전국의 병원이 모두 힘들 때에도 문경제일병원은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뤄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의료진 및 의료시설 등 병원 환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결국 문경제일병원을 지역에서 인정한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이 편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센터를 조성하며, 최첨단 인공신장실 등의 의료시설의 확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의사사고 등으로 병원에 대한 공포심은 시각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최초로 총 5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등 미봉책으로서가 아닌 그야말로 최상의 의료진과 최첨단 각종 의료시설, 종사자들의 친절 등 복합적인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믿고 찾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류 이사장은 지난 1993년 평사원으로 병원 일을 보기 시작한 23여년동안 병원경영에 대한 실력과 덕목을 갖춰 부친인 류종식 회장과 이사진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연초 이사장직에 선출됐다.

각종 의료시설 확충과 확장을 위해 올해만 100여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류이사장은 “병원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 꿈이며,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원아파트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